

자치구 기후위기 선제 대응... '녹색 발걸음' 속도

광주 5개 자치구 제3차 기후위기 대책 수립

동구, 주택 수리...서구, 쿨링포그·텃밭 확대 남구, 배수펌프장 유지...북구, 침수 피해 예방 광산구, 영산·황룡강 수계 강화...생태계 보전

광주 5개 자치구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25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2026~2030)'을 수립하고 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동구는 '회복력 있는 기후적응도시 동구'를 비전으로 5개 부문, 38개 세부사업(기존 14개·신규 24개)을 세웠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지성 집중호우, 폭염, 한파 등 예측이 어려운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노후화된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동구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총 1만 3488호로 전체 주택의 30.3%에 달한다.

이에 동구는 노후화된 주거시설의 단열취약, 냉·난방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9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집수리지원사업에 나선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36

억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민참여형 평가단을 운영하고, 기후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전달체계 구축 등으로 실효성 있는 기후 적응 대책을 완성할 계획이다.

서구는 열·침수 복합위험이 상존하는 고밀도 생활권 특성에 따라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의 보장'을 핵심 목표로 6개 부문과 30개 사업(기존 14개·신규 16개)을 수립했다.

서구는 5년간 총사업비 309억3000만원을 들여 이행정점점 정례화, 부문 간 연계성 강화, 점검 결과 피드백 등 3가지 원칙으로 관리 구조를 구축한다.

서구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과 무더위쉼터에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버스정류장·보행로·공공건물 옥상 등에 쿨링포그·쿨루프 도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 마을 단위 '쿨링가든(그늘쉼터)'을 조성한다.

남구는 5개 부문, 42개 사업(기존 14개·신규 28개)에 총사업비 546억9900만원을 투입한다.

기후재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의 선제적 대응체계 중요성이 대두 됐다. 이에 올해 신규 조직되는 재난대응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통해 마을단위 기후 위험요소 지역을 발굴한다.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를 주력, 시설하우 발생 시 신속한 가동태세를 유지한다.

북구는 선제·예방 대응, 회복력, 적응 역량 등 3대 목표, 13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북구는 오는 2030년까지 6개 부문, 36개 사업(기존 17개·신규 19개)에 2275억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운암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을 기후위 취약지역으로 보고 지장수목 제거·준설, 재해복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침수피해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광산구 도심은 폭염·침수에, 외곽은 한파·가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광산구는 1067억2700만원을 투입해 6개 부문, 48개 사업(기존 10개·신규 38개)을 실행한다.

영산강·황룡강 등 수계 기반의 통합적 물관리 강화를 위해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연계한 광역·기초 공동수계관리위원회 설치, 홍수·가뭄 공동대응 매뉴얼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녹지 휴게공간 조성, 보호수 관리, 장목수지 보전 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생태계 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나선다.

자치구 관계자는 "기후위기의 영향은 지역적 특성과 취약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이에 적합한 지역단위 적응 전략 대책을 만들었다"며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맑음 07:06 달맞이 12:36
☁️ 맑음 18:25 달맞이 03:09



광주	☀️	3~15
목포	☀️	3~10
여수	☁️	5~12
순천	☀️	3~11
구례	☀️	1~16
광주	☀️	2~13
신도	☁️	5~12
흑산도	☁️	6~10
진남	☁️	2~14
진도	☀️	3~11

목포	미물(고)	09:15 / 21:13
	샘물(저)	01:18 / 15:02
여수	미물(고)	04:32 / 16:54
	샘물(저)	11:17 / 23:06

광산사랑상품권 80억원 '조기 완판'

8월 31일까지 적립금 운영

80억원 규모의 광산사랑상품권이 조기 완판됐다.

25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를 위해 10% 선할인과 5% 적립금(캐시백)을 제공했으며, 모바일 정보무늬(QR)형과 체크카드형 두 가지 형태로 지난 1일경 발행했다.

이번 완판은 지난해 100억원 규모 발행보다 빠른 것으로,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광산구는 상품권 물량 소진에 따라 선할인 혜택과 판매를 종료했으며, 적립금(캐시백 5%) 혜택은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한다. 다만 적립금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특히, 판매완료 기준 사용률(24일 11시 기준)은 63.8%로, 발행된 상품권이 지역 내 상권으로 유입되며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사랑상품권의 조기 완판은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가맹점 확대와 사용자 편의를 개선해 광산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jh4415@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모의개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5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의 개표 시연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골목상권 활력' 광주 북구 부끄머니 80억 발행

내달 3일부터 판매...15% 할인

광주 북구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처음 발급돼 단 6일 만에 완판됐던 지역화폐 '부끄머니'가 올해도 발행된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판매되는 부끄머니는 은누리상품권·광주상생카드(할인율 10%)보다 높은 1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발행 규모는 80억원이다.

만 14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금액별(3·5·10·20·50만원)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북구는 부끄머니 사용 활성화와 주민 편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북구 소재 광주은행(18개소)으로 한정됐던 부끄머니 구매처를 광주 전역(67개소)으로 확대했다.

부끄머니가 신속하게 골목상권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1인당 보유 한도를 전년도 발급 잔액 포함 50만원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2만개가 넘는 가맹점을 지속 관리하고 추가 확보에 나서는 등 북구 전역에서 부끄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무등산·월출산·다도해해상 쓰레기 투기 급증

지난해 93건 적발...2021년 대비 46.5배 늘어

무등산·월출산·다도해해상 국립공원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2021~2025년) 국립공원 쓰레기 및 탐방객 현황'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2건(다도해해상 2건)에서 지난해 93건(다도해해상 56건·무등산 32건·월출산 5건)

이었던 국립공원별로는 다도해해상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산 39건, 월출산 10건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다도해해상은 2021년 2건, 2022년 11건, 2023년 60건, 2024년 54건, 2025년 56건으로 집계됐다.

무등산은 2023년 2건, 2024년 5건에서 2025년 32건으로 급증했고, 월출산은 2024년, 2025년 각 5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 또한 증가했다.

2021년 72.54t(다도해해상 35.69t·무등산 18.5t·월출산 18.35t)이었던 쓰레기 발생량은 지난해 150.9t(다도해해상 97.48t·무등산 18t·월출산 35.42t)으로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영 의원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을 사각지대 없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탐방객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국민 참여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비트코인 수수료 빌려줘"

만년필 〇·11억원대 허위 비트코인 화면을 보여주고 인출 수수료로 1000만원을 받아 쟁전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 형사5단독 지재선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5개월을 판결.

A씨는 지난 2022년 8월23일 광주 북구의 한 어학원에서 자신의 소개로 알게 된 원장 B씨에게 약 11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비트코인 보유 화면을 보여준 뒤 인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가로챘던 혐의로 기소.

그러나 A씨는 해당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나 수입도 없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심지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임영진 기자 looks@

'민주·인권 공간' 흥남순 변호사 가옥 3월 개관

민주사랑방 등 6가지 스토리라인 구성 기념사업회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 목표'



광주 동구 공동 15번지에 위치한 고(故) 흥남순 변호사 가옥.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주도한 고 흥남순 변호사의 가옥이 오는 3월 중 시민에게 개방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고 흥남순 변호사 가옥 복원 및 기념 공간 조성 사업은 시비 10억원을 들여 광주 동구 공동 15번지 토지 135㎡, 건물 99㎡ 규모의 단층 건물을 보수했다.

5·18 사적지 제29호인 흥 변호사 가옥은 이달 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공간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흥 변호사와 재야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토론과 구술사 석방 논의를 관련 문헌 작성 등을 했던 곳이다.

가옥은 '민주·인권운동 대부 흥남순 변

호사'라는 주제로 흥 변호사의 당시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6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뒤편마루'에는 흥 변호사의 생애를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5·18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등으로 구분해 연대별로 전시된다.

'광주의 민주사랑방'에는 사진·고서·사건으로 보는 흥 변호사의 일대기와 유품, 훈장 등을 볼 수 있다.

'긴급조치 전문 인권변호사 흥남순'에는 서적, 가구 등을 활용해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재현했으며,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한 주요 사극사건에 대한 흥 변호사의 인권변호 일지를 전시한다.

'5·18민주화운동과 흥남순'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를 지켜내기 위해 의인들과 함께했던 투쟁 내용을 선보인다.

'민주화와 국민의 권리를 위한 헌신' 공간에는 흥남순 기념사업회 제작 영상, 어록 등을 비롯해 재야인사들과 만남 포토존, 메시지를 기록하는 참여공간으로 조성됐다.

영상자료실에는 방문객들이 흥 변호사 관련 도서 체험 및 휴게공간으로 마련됐다.

흥남순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는 시와 함께 흥 변호사의 민주·인권·평화 정신과 사무실을 재현했으며,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한 주요 사극사건에 대한 흥 변호사의 인권변호 일지를 전시한다.

김승원 흥남순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흥 변호사가 살아온 길을 기억하기 위해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며 "분기별로 흥 변호사 일대기,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주제로 민주사랑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흥 변호사는 1912년 7월20일 전남 능주군(현재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에서 태어나 195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1960년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판사가 되기 전부터 광주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판사직을 그만둔 뒤 1963년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변호사로 일하며 1970년대에는 유신독재와 투쟁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과 민주화 활동에 매진했다. 그는 2001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투병하다가 2006년 10월14일 사망했으며, 국립 5·18민주묘지 제5묘역 76번에 안장됐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